

# “완도 명사십리 모랫길 맨발로 걸어보세요”



## 12일 ‘전국 맨발 걷기 축제’ ‘완도 해양치유의 날’ 선포

완도군이 오는 12일 신지 명사십리에서 ‘해양치유 완도 전국 맨발 걷기 축제’를 개최한다.

7일 완도군에 따르면 축제는 ‘완도, 치유의 파도길을 걷다! 바다를 품다!’를 슬로건으로 ‘해양치유 완도 맨발 걷기 대회’와 ‘완도 해양치유의 날’ 지정 선포식, 다채로운 해양치유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한다.

맨발 걷기 대회 참가자는 지난달 17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통해 받았으며 당일 현장(명사십리 제1주차장)에서도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부는 가운데 걷기 동호인, 관광객, 주민 등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대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 당일 오전 10시부터 해변 필라테스와 엑서사이즈, 머드 팩, 꽃차 시음 등 완도 해양치유를 할 수 있는 체험 존을 운영하며 맨발 걷기 효능 및 기본 동작 설명 등 전국맨발걷기운동본부의 박동창 회장의 강연이 진행된다.

식전 행사가 끝나면 참가자들은 모래 해변(3km)과 황토길(1.2km)을 맨발로 걸으며 건강한 에너지를 채우고完보한 참가자에게는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대회가 끝난 후 추첨을 통해 태블릿 PC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축제 첫날 ‘완도 해양치유의 날’로 지정하는 선포식도 갖을 계획이다.

군은 전국 규모의 맨발 걷기 대회와 ‘완도 해양치유의 날’ 선포식을 통해 ‘해양치유 1번지 완도’를 널리 알리고 관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우철 군수는 “신지 명사십리는 맨발로 걷기 좋은 고운 모랫길과 공기 비타민인 산소 음이온이 도시의 최대 50배나 많을 정도로 청정한 곳이다”며 “걷고 치유하기에 최적지인 완도로 오셔서 힐링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 폭염 대비 취약 어르신 보호 총력 무안군, 비상연락망 점검 등

전라남도 무안군은 여름철 폭염특보 발효 시 매일 안부를 묻는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보호대책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위탁 수행 중인 무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나민희)와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센터장 한일완)는 지난 5월부터 폭염 대비 보호대책 수립, 돌봄 수행 인력 교육, 취약 어르신 대상 폭염 대응 행동요령 및 건강수칙 안내, 비상연락망 점검 등을 지속 추진해왔다.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돌봄 인력이 매일 취약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보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해 운영 중이다.

오선희 무안군 주민생활과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더욱 촘촘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취약 어르신 보호에 빈틈없이 힘쓰겠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언 기자

## 여름철 고추 재배·해충 방제 당부 강진군, 염화칼슘 염면 살포 등

전라남도 강진군이 고추 안정생산을 위한 여름철 고추밭 관리 요령과 병해충 방제에 대해 농업인 지도에 나섰다.

7일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폭염과 강우가 반복되는 고온다습한 여름 날씨에는 고추 뿌리에 부담을 주면서 낙과와 같은 생리장해와 함께 탄저병 등 병해충 발생도 나타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장마기에 접어들었지만 비가 오지 않고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어 토양 수분의 급격한 증발과 온도상승으로 작물이 비료 성분을 빨아먹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고추 과실에 나타나는 갈습결핍 증상의 하나인 배꼽썩음과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거나 건조한 상태로 방치된 고추밭에서 피해가 크다.

배꼽썩음과 피해가 나온 밭에는 비가 올 경우 탄저병이 발병하는 2차 피해로 수확량을 크게 낮출 수 있다. 피해과가 보이면 적절한 관수와 함께 염화칼슘 0.3%액을 7일 간격으로 2~3회 염면 살포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여름철에는 해충도 기승을 부린다. 담배나방의 경우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가 고추 열매 꼭지 부근으로 침입해 들어가 피해를 줄 수 있고 총채벌레와 응애의 밀도가 높으면 꽃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착과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바이러스 발생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잦은 예찰을 통해 발병 초기에 약제로 방제하도록 지도하면서 폭염특보때 급급적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새벽이나 저녁시간을 활용해 영농작업을 해야한다.

최영아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고추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여름철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한낮의 폭염때는 작업을 피하고 수시로 물을 마시는 등 온열질환에 대비하면서 농작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 ‘2025년 여름 독서 교실’

목포어린이도서관, 오늘부터 접수

전라남도 목포어린이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문해력 향상을 돕기 위한 ‘2025년 여름 독서 교실’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독서교실은 ‘여름아, 읽자!’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도서관 이용방법, 자율독서, 아동권리헌장 사전 만들기, ‘여름수호대’ (비누모빌 만들기), ‘용돈을 부탁해’ 등 어린이들의 흥미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독후활동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참가 신청은 8일부터 목포시통합도서관 누리집(www.mokpolib.or.kr)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목포어린이도서관(061-287-1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독서교실을 통해 아이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고 주체적인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 ‘신나는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무안군 남악청소년문화의집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청소년문화의집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특별 프로그램 ‘신나는 여름방학’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8일 화요일부터 8월 28일 목요일까지 진행되며 K-POP댄스(8명), 요가(15명) 등으로 구성되어 참여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증진과 또래 간 소통·협력을 통한 사회성과 자존감 향상이 기대된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참여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 내용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차회 프로그램 운영 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개선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오선희 주민생활과장은 “청소년들이 여름방학 동안 건강하고 활기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언 기자



지난 4일 신안군 자은면 복지기동대원들이 관내 독거어르신 가구를 찾아 주거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신안군 제공

## 신안군 자은면 복지기동대·적십자회, 주거 환경 개선 봉사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복지기동대와 대한적십자봉사회 자은면협의회가 4일 구영마을 독거어르신 가구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 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자들은 집 안팎의 불필요한 물건과 쓰레기 약 5톤을 수거하며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박남근 자은면 복지기동대장은 “봉사 참여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배려하는 지역공동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순금 대한적십자봉사회 자은면협의회 회장은 “바쁜 농사철에도 뜻깊은 봉사에 동참할 수 있어 보람 있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올해 자은면 취약계층 37가구 50명에게 총 4166만원 상당의 맞춤형 복지지원을 실시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 강진군, 가축 폭염 피해 예방 총력

###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등

전라남도 강진군이 7~8월 높은 기온과 함께 강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가축폐사 피해를 예방하고 가축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7일 강진군에 따르면 전 축산농가(1250농가)를 대상으로 폭염 대비 행동요령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취약 축종인 양돈,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전기, 냉방시설, 환풍기 등 시설점검을 안내하고 있다.

농가 전담제를 실시해 관리하고 있으며 가축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를 추가 예산 확보해 긴급 공급한다.

이번 조치는 기온 33도 이상 고온이 연일 지속되며 축산현장에서 가축의 사료 섭취 저하, 생산성 감소, 폐사 등 고온스트레스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폭염에 취약한 닭, 오리, 돼지 농가를 포함해, 한우, 젖소, 꿀벌 등 축산 사육농가이다.

1차에 이어 추가로 5200만원을 긴급 투입해 축종별 적합한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제품을 선정해 공급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지난 5월부터 1차로 관내

300농가에 5천만원을 투입해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를 순차적으로 배부했다. 이번 폭염경보 발령으로 가축폐사 등 피해와 우려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군 예비비를 투입해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된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는 체온 조절과 수분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 가축이 고온 환경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폭염은 가축 생존뿐 아니라 농가의 경제적 손실로 직결되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폭염 대비 행동요령 홍보, 급수시설 점검, 열차단재 도포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통해 축산농가와 가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